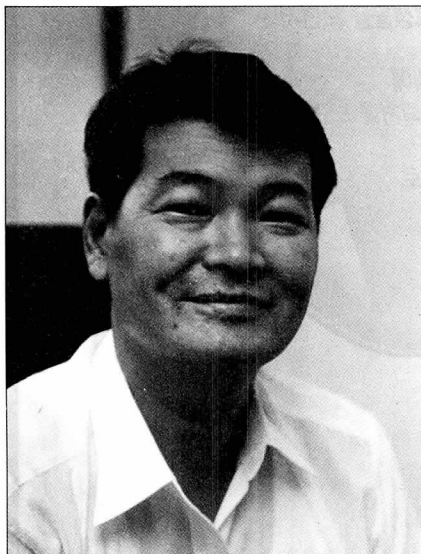


97년, 이들을 주목한다

새 '술'을 빛는 선두주자

문학동네 대표 강태형씨



강태형씨.

90년대 중반 문학출판의 가장 큰 특징은 민음사·창작과비평사·문학과지성사의 '과두체제'가 무너지고, 신홍 출판사들이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다. 이른바 문학출판의 '빅 쓰리'가 종합출판사로 운영되면서 문학쪽에 소홀한 원인으로 있지만, 90년대의 새로운 감성은 역시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문학동네는 새 '술'을 빛는 선두주자다. 도서출판 포도원으로 출발해 문학동네로 거듭난 것이 93년 12월. 이듬해부터 문학전문 출판사로 활발한 활동을 벌인다. <문학동네 장편소설> <문학동네 시집> <문학동네 산문집> <신화상징총서> <문학동네 소설 2000> <포에지 2000> 등의 기획을 통해 펴낸 책이 150여종에 이른다.

포도원 시절 편집장이었던 인연으로 문학동네의 살림을 책임지는 중책을 떠맡고 있는 강태형 대표(41)는 신인작가의 처녀작에 애착이 남다르다. 윤대녕·은희경의 첫번째 책과 지난해에 나온 전경린·김영하·조경란의 소설들을 아낀다.

“문학동네의 성격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은 계간 <문학동네>입니다. '작품성'을 위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미 이뤄져 있는 것보다는 이뤄질 가능성에 치중하겠습니다. 문학동네가 젊은 작가와 신인작가에게 주목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문학동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문을 닫을 뻔한 위기 등을 거치면서 3년 만에 고유한 색깔을 지닌 출판사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대중문화 쪽을 전담할 '리뷰 앤 리뷰'를 설립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계간 <리뷰>를 필두로 대중분위의 소설과 대중문화 관련서를 펴낸다.

소유주가 따로 없는 문학동네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못된다고 말하는 강태형 대표는 독자와 문인들을 위한 “작지만 탄탄한 문학동네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최성일 기자

‘과학세대’는 일종의 게릴라 부대다. 각자 자신의 일에 전념하다 필요하면 모여 공동작업을 치열하게 해내는 조직적 특성이 그렇고, 단순번역에서 기획과 번역, 나아가 집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방위적인 능력이 그렇다. <기술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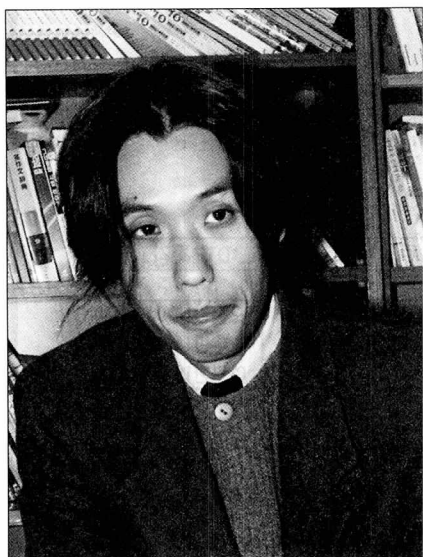
<과학기술프론티어 100> <수학자의 신문읽기> <4차원 여행> 등은 이들이 지난해 내놓은 책. ‘인간을 위한 과학’이라는 이들의 이념을 웅변해준다. 과학세대의 대표 김동광(40)씨가 새해에 가장 주목할 만한 번역자로 꼽혔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들, 삶에 의미가 있는 주제들을 다양한 형식과 결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양질의 번역을 독자들에게 공급한다는 원칙은 고수하지만 집필쪽으로 지평을 넓힌다는 게 김동광씨의 새해 계획이다. 책이든 다른 매체든 다양한 형식을 통해

나만의 상징으로 독자와 교감한다

표지 디자이너 정정호씨



정정호씨.

97년이면 정정호씨(34)는 표지 디자이너 경력 8년차로 접어든다. 86년 <리더스 다이제스트> 편집일을 시작으로

출판과 인연을 맺은지 꼭 11년째다. “학교를 졸업하고 모두들 선망하는 광고회사에 들어갔지만 내 것으로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책표지 디자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표지 디자인은 전문적인 장르로 구분되지 않아 돈벌이도 안됐다. 열악한 상황을 감내하면서도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정정호의 작품'을 많은 이들이 본다는 명예욕(?)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달에 30권씩 그려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작품이라니 인감생심이였다.

정정호씨가 비로소 자신의 표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시공사 입사 이후. 베스트셀러인 <펠리컨 브리프>를 위시한 존 그리삼의 책 표지가 모두 정정호씨의 작품이다.

“표지를 만들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상징'입니다. 눈에 띄는 표지는 그 상징이 독자들과 원활하게 소통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점에서 95년 연말 한 일간지에서 조사한 '기억에 남는 책표지 베스트 5'에 자신의 책이 세권이나 뽑혔던 것을 정정호씨는 기분 좋게 여기고 있다.

<펠리컨 브리프>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고등어>, 그는 이들 책 표지에서 드러난 상징이 책 내용과 연결되어 사람들 마음 속의 정서를 움직였다고 믿는다.

“프리랜서로 독립했지만 혼자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양을 못합니다. 또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고객과 쉽게 타협하고 싶지도 않구요.”

지난 성탄일에 결혼한 정정호씨가 97년을 시작하는 마음은 남다르다. 많은 이들의 기호와 의식을 한꺼번에 만족시킬 '표지 베스트셀러'는 이제 없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표지를 구상하고 있다. '기계문명에 깃든 향수', '불가독성'이 올해 정정호 표지의 주제다. — 이현주 기자

“편집자는 본래 전면에 나서지 않는 연출가입니다. 필자가 가진 지적 자산과 독자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책이라는 문화상품으로 연출해 내는 것이 편집자의 일입니다.”

푸른숲의 김학원 주간(35)은 자신이 편집한 86종의 책 서문에 한 번도 편집자를 치사하는 문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평생을 동고동락한 편집자’ 정도가 되어야 자신의 이름을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편집자는 임의적으로 책 한권을 엮는 사람이 아니라 학계와 출판계의 흐름과 쟁점,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기획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좋은 편집자란 무원칙한 아이디어 맨이기보다는 필자와 호흡하고 독자와 호흡하는 편집자여야 한다”는 그는 좋은 필자를 발굴하기 위해 재야에 있는 필자, 학맥에 얽혀 있지 않은 좋은 필진을 끌어내는데 애쓴다. 함께 작업한 필자들과는

낙시터의 즐거움

저수지와 어종만 선택해 놓으십시오.
다른 낙시도구 일체는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월척을 낚을 채비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내용 집 필: 자서전·회고록·개인출판 및 문학·위인전 등
운 문: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 정: 사전류·참고서류·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 집: 백과사전·잡지·사보 등

기계설비 매킨토시 5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3대
스캐너 2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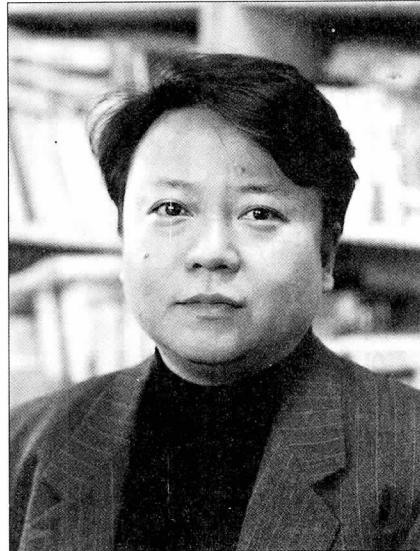
三現編輯室 대표자: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549-6883~5 팩 스: 515-1453
천리안·하이텔: SAMYEUN

번역 전장의 게릴라부대 과학세대 대표 김동광씨

일상적이지만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대중적인 과학 저술'의 전형을 창출한다는
포부다. 아울러 인문·사회·자연과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지니고
과학저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필진을
양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유신말기의 폭압 하에서 대학을 다녔던
김동광씨는 독문학을 전공, 10년 넘게
노동운동을 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과학사회학에 관심이 커 최근 고려대
대학원에 개설된 과학학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 《환경보고서》의 번역이
마무리 단계이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마인즈 아이》《과학의 종말》《과학과 문명》
등이 97년 그가 세상에 내놓을
번역서들이다. 번역이 곧 문화를 옮기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김동광씨는 최근의
오역과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번역자의
수나 번역의 질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지원시스템은 제자리



김동광씨.

수준입니다. 전체 문화의 질적인 발전 없이
번역문화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 박남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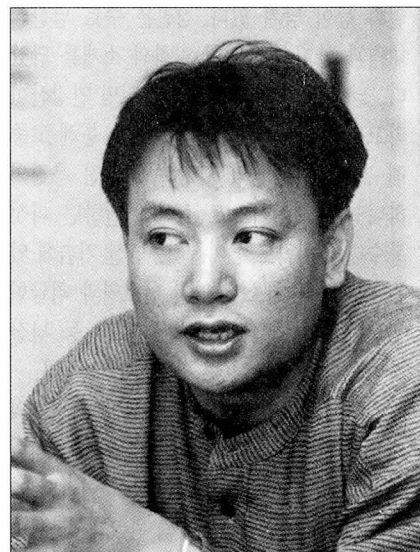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조직자' 푸른숲 주간 김학원씨

늘 관계를 유지하고 언젠가 다음 책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을 고무한다. 독자를
만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서점에
나가 점원이나 독자의 경향을 듣고
독자엽서도 열심히 읽는 편이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필자이거나 훌륭한 표본독자로
생각하고 진지하게 듣는다.

출판은 지적 노동이 집결되는
가치산업이므로 편집자는 합리적인 태도로
문화조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출판은 문화산업의 핵심이라는 것을
담지하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외국의 출판을 살펴보면
그들은 스케일과 디테일에 똑같이 충실을
기하는데, 우리는 스케일만 따라가는
형국이어서 중장기적인 안목과 꼼꼼하고
완벽한 자세가 아쉽습니다."

— 마정미 기자



김학원씨.

신년 특집 '97년, 이들을 주목한다'의 인물을 추천해주
신 분은 권영빈(중앙일보 논설위원) 김태수(국민일보)
노정룡(세계일보) 박구재(경향신문) 정명진(중앙일보)
정병규(북디자인) 윤혜원(연합통신) 허연(매일경제)
씨. (이상 가나다순)